

한국어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읽기텍스트 선정 전략 연구*

—문화교육을 위한 현대소설 제재를 중심으로—

김동환**

<차 례>

- I. 문제해결을 위한 문화교육
- II. 교육현장의 문화교육에 대한 검토
- III. 소설적 상황 중심의 텍스트 제시를 통한 문화교육의 사례
- IV. 맺음말

I. 문제해결을 위한 문화교육

언어활동능력은 어떤 말을 제 때 제 때, 필요에 맞게 생산해 내는 능력이다. 언어생활은 삶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동일하게 반복되는 일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창조적인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¹⁾ 언어생활이 창조적이라는 것은 결국 한 개인이 주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언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언어교육은 한 언어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2-B00651)

** 한성대학교

1) 이러한 생각의 단초는 김대행 교수의 다음 논의를 통해 얻을 수 있었다.

김대행, 언어교육과 문화인식,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의 내용과 방법,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5차 학술대회 자료집, 2008. 5.

활동 주체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맥락에서 자신의 힘으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새로운 것 없는 진술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삼 언급하는 것은 한국 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실마리를 얻기 위해서이다.

언어능력도 성장하는 존재일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성장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경험적으로 인간의 성장사의 한 특성은 장애의 봉착과 그 장애의 극복이라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언어능력의 성장과정에서도 장애라는 요소가 등장한다.

한국어를 주체적으로 구사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집중적이고 다양한 양상의 장애와 대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언어교육의 범주에서는 문제적 개인들이다. 외국인들은 한국어의 습득 과정에서 언어 그 자체의 다름에서 오는 장애와 그 언어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만나게 되는 변수가 던져 주는 장애를 만나게 된다. 이 논의에서는 모문화와 다른 한국문화가 그들이 만나는 가장 빈번한 장애요소의 하나로 작용하리라는 점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²⁾

원활한 한국어활동에 장애를 주는 한 요인으로 한국문화를 설정하는 일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성인으로서, 문화적 이

- 2) 한국어교육의 한 영역으로서의 ‘문화교육’에서 ‘문화’의 개념은 그야말로 다기하고 착종되어 있다. 고도의 정신문화로부터 ‘전화번호부’라는 항목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 한국어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문화교육에서의 문화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연구자의 개별적이고 자의적인 접근에 기대고 있다. 이 논의 역시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이 논의에서는 문화의 개념을 엄밀하게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논의의 초점도 아닐뿐더러 문화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맥락도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는 문화를 ‘예술과 예술적 활동’, ‘삶의 방식’, ‘과정과 발전’으로 유형화하고 있는 다음의 관점에 많기 기대고 있다.

일레인 볼드윈(조애리 외 역) 문화코드 어떻게 볼 것인가, 한울, 2009.

한편 구체적인 활동의 구상과정에서는 문화를 산물(product), 관념(idea), 행동(behaviour)의 세 분야로 나누고 있는 Tomalin & Stempleski의 견해와 문화교육의 내용을 지식, 경험, 수행, 태도로 설정한 김대행 교수의 견해가 여러 시사점을 주었다.

Tomalin & Stempleski, Cultural Awareness,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김대행, 앞의 글.

방인으로서 한국사회에 발을 딛고자 하는 외국인들³⁾에게는 한국인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생활해오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언어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짧은 기간에, 대등한 수준으로 습득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불리함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에 그들이 ‘한가하게 이러저러한 한국문화를 체계적으로, 지식으로,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처지’⁴⁾는 아닌 것이다. 그들은 한국어생활에 실체적인 존재로 작용하고 있는 문화요소들에 대해 학습하는 것이 급선무인 셈이다.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가 하나의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는 맥락에서 바라보는 한국문화교육은 그래서 문제해결을 위한 문화교육이라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II. 교육현장의 문화교육에 대한 검토

문화를 순기능적인 측면보다 역기능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이유는 한국어문화교육에 대한 필자 나름의 분석적 검토가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한국어교육전공자는 아니지만 한국어교육기관의 운영자로, 대학원 한국어교육전공 교육과정의 한 참여자로 지속적으로 한국어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했었기에, 강변에 가까운 것이기는 하지만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위치에서 한국어교육의 문화교육에 대한 검토를 시도해 본 것일 따름이기에 그 발상과 논리가 매우 거칠고 빈약할 것이나, 때로는 비전공자의 조야한 한마디도 전공자들에게 어떤 생각의 계기를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소박한 믿음을 가진 연

3) 이런 맥락에서 이 논의는 외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은 접근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결혼이민자나 유학 후 한국 체류자 등이 전형적인 대상이 될 것이다.

4) 이 진술은 필자가 재직 중인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의 회사에 취직했으며, 같은 과정을 거친 외국 여성과 결혼한 한 중국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오고 간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구자의 목소리로 받아들여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여러 관련 맥락 때문에 한국어교육현장에서의 문화교육⁵⁾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필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공유했으면 하는 문제점으로 추출해 보았다.

첫째, 문화교육의 목표가 보다 분명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학습자가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분명하게 차별성을 지닌 목표가 설정되고 그에 따라 교육 내용이 구안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문화교육과 학문을 수행하기 위한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육, 한국 내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려는 학습자나 여행자를 위한 문화교육의 목표는 분명하게 달라야 한다고 본다. 필자가 검토한 한국어교재들은 불특정 학습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문화교육의 방향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개방적인 형태로 두고 있어 경우에 따라 달리 적용할 여지는 있겠으나 그 다양한 적용 가능성이 잘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든다. 한국문화의 지식적 이해인지, 실천적 수행을 위한 학습인지 등의 구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다음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둘째, 문화가 설명적 텍스트로 재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설명적 텍스트는 사전적 기술의 형태로부터 비평적 성격을 띤 기술의 형태로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문화가 ‘설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 보았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를 보자.

〈절기와 세시풍속〉

한국에서는 두 가지 달력이 함께 사용되는데, 양력과 음력이 그것이다.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보름달이 뜨는 날은 언제나 15일이 된다. 하지만 음력은 약 3년마다 1년이 13달이 되어, 계절의 변화와 잘 맞지 않는 것이 단점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태양을 기준으로 24절기(節氣)를 만들어 음력과 함께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24절기는 양력의 날짜와 거의 일치한다.

5) 필자가 살펴 본 대상은 각 대학의 한국어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에 나타난 한국문화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최근에는 24절기가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아직도 몇몇 절기는 중요하게 여겨진다. 입춘, 하지와 동지, 춘분과 추분 등이 그것이다. 입춘은 봄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 날로, 입춘이 되면 때문에 ‘입춘대길(立春大吉)’이라는 글을 붙여 행운을 기원하는 풍습이 있다. 하지와 동지는 각각 낮이 가장 긴 날과 밤이 가장 긴 날이고, 춘분과 추분은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날이다. 특히 동지에는 팔죽을 먹으며 부정을 막는 풍습이 있다.

이 밖에도 특별한 날을 정해 이를 기념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를 세시풍습이라 한다. 한식(寒食)은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의 하나이다. 이 날은 불을 피우지 않고 찬 음식을 먹으며, 조상의 묘에 성묘하는 풍습이 있다. 한여름에는 초복, 중복, 말복 등 삼복이 찾아오는데, 복날이 되면 더위를 이기기 위해 삼계탕과 수박 등을 먹는 풍습이 있다. (전문)⁶⁾

〈한국인의 귀향〉

술한 사람들이 혈육의 정, 명절의 따스한 분위기, 고향의 안락함 등을 꿈꾸며 아귀다툼 같은 교통 혼잡을 비집고 서울을 빠져 나간다. 그리고 시골 마을은 모래간만에 돌아 온 사람들에게 의해 활기를 되찾는다. 나이드신 부모님과 친지, 동네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나서, 대개 동년배끼리 사랑방을 하나씩 차지하고서는 이런저런 추억담, 도시 생활 이야기 등을 나눈다. 오랜만에 일상의 분주함과 고단함으로부터 벗어나 짧은 시간이나마, 고향에서 살았던 조상들과 자신을 되돌아 보며, 지금의 자기 위치를 확인해 보는 시간인 것이다. (부분)⁷⁾

〈설날은 큰 명절 중의 하나예요〉

바바라 : 세계 어느 나라에도 명절이 있고 그 날에는 전통적인 풍속이나 놀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도 독특한 설날 풍속과 정월 놀이가 있겠지요?

선생님 : 그래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는 설날이 큰 명절 중의 하나예요. 오늘은 설날의 독특한 풍속과 정월 놀이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설빔이라는 말 들어 봤어요?

다나카 : 네 설날에 입는 새옷을 말하지요?

선생님 : 맞아요. 어른들은 새로 지은 바지저고리에 흰 두루마기를 입었고

6) 경희대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 한국어 중급 I. 경희대출판국 2001, 90쪽.

7)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한국어 6,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33~34쪽.

아이들은 색동옷을 입었어요.

바바라 : 설날이 되면 누구나 다 설빔을 입었나요?

선생님 : 그렇다고 할 수 있지요. 특히 아이들은 설빔을 입으려고 설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곤 했대요. 그래서 가난한 집에서도 아이들을 설망시키지 않으려고 어머니는 설날 그믐날 밤을 새우며 새 옷을 지으셨다고 해요. (부분⁸⁾)

위 텍스트들에서 한국의 ‘세시풍속’ ‘귀향’이라는 문화는 매우 건조하고 압축적이며 보편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수용자가 수용과정에서 고려할 요소는 거의 없는 일방적 전달구조이다. 이 같은 설명방식은 문화가 형해화된 지식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주는 방식이라 판단된다. 다른 교재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체로 ‘한국의 문화’ ‘한국의 문화 해설’ 등의 이름으로 독립적인 항목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역시 설명형이다. 물론 교재라는 특성상 이렇게 제시될 수밖에 없음도 인정하지만 비교문화적인 기술이나 보다 구체적인 존재 방식에 대한 언급 등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문화의 제시과정이 몰주체(沒主體)적이라는 점이다. 문화는 살아 움직이고 작용하는 실체이다. 그럼에도 기술의 주체가 사라진 채 제시되고 있다. 앞에 예로 든 텍스트도 그렇지만 한국문화를 제시하는 거의 대부분의 텍스트들에는 문화주체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누구의 눈으로, 누구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문화의 발현 양상이나 속성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장례를 예로 든다면 상주의 입장과 조문객의 입장에서는 장례문화를 수행하는 주체로서의 지식이나 경험, 태도 등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도 거의 대부분의 장례문화 제시는 아주 객관화된, 달리 말하면 주체가 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실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문화의 속성을 무화시킬 위험성을 다분히 안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검토 의견은 교재의 범주가 아닌 실제 강의의 면면을 아울러

살피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겠으나 현재의 한국어교육의 현황에서 교재가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그리 빈약한 생각만은 아니리라 본다.

Ⅲ. 소설적 상황 중심의 텍스트 제시를 통한 문화교육의 사례

1. 텍스트 설정을 위한 사전 검토

1) 소설의 장르적 유용성

이 논의의 초점은 현대소설을 텍스트로 한 문화교육의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 필자가 문화교육의 매우 유용한 텍스트로 현대소설을 상정하는 근거의 하나는 소설이 지닌 장르적 속성이며 다른 하나는 문화적 존재로서의 작가의 위상이다.

소설의 장르적 속성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으나 이 논의에서 주목하는 바는 감각적 명징성을 바탕으로 삼는다는 점과 문제적 개인과 문제적 상황을 다룬다는 점이다.

먼저 첫 번째 경우를 보자. 사물과 현상에 대해 감각적인 접근을 시도하지만 그 구조화된 결과는 논리적인 접근 결과에 못지않게 명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속성을 감각적 명징성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⁹⁾ 사랑에 대해, 전쟁에 대해, 죽음에 대해 감각적인 형상화를 시도하지만 소설적 구조는 그 감각적 형상화를 논리적 표현으로 바꾸어 놓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추상적인 대상들도 구체성을 띠는 실체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문화는 가시적인 것에서 비가시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추상성을 바탕으로 삼는다. 건축과 같은

9) 이러한 발상과 접근법은 김윤식 교수의 제 저작에서 얻어 왔다.

가장 가시적인 존재도 그 문화사적인 의미는 비가시적인 형태로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런데 이 비가시적인 것들은 감각적 명징성을 바탕으로 삼는 소설 속에서 형상화될 때 구체화된 양태로 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감각적 접근이 유용하게 작용하는 대목이다.

둘째, 소설이 문제적 개인과 문제적 상황을 다룬다는 내적 형식과 관련된 측면이다. 잘 알려진 전형적 상황과 전형적 인물을 통한 사회적 총체성 구현이라는 소설의 장르적 속성은 상황과 주체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 문화의 작용양상과 맞물려 있다. 즉 언어활동과 관련된 문화는 어떤 상황에서 언어활동이 원활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데 필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 소설이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상황과 인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문제적 상황에 놓인 문제적 인물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과 모문화와 다른 문화 속에서 언어활동을 하려는 주체로서의 한국어학습자의 이야기는 서로 상통하는 맥락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소설 속에 구현된 문화적 양상은 학습자에게 매우 유의미한 간접 경험체가 될 것이다. ‘실감을 주는’ 상황의 재현을 기반으로 삼는 소설적 상황은 수용자에게 실체적으로 다가올 것이라 본다. 특히 문제해결로서의 문화교육을 고려한다면 소설에 구현된 문화현상의 의미는 극대화될 것이다.

셋째, 소설은 내러티브 양식으로서 구조를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가는 양상을 보여준다. 소설이 다른 양식과 달리 삶의 문제들을 총체적이고 구조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을 학습하고 향유하는 주체는 작중인물과의 동일시, 메시지의 내면화를 통해 삶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다가가게 된다. ‘실감’을 주는 내러티브 양식으로서의 소설을 통한 문화교육은 그래서 형해화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문화적 존재로서의 작가의 위상 문제를 검토해 보자. 문화는 집단적인 것이며 또한 개별적인 것이다. 생산의 주체가 집단적이거나 개별적이며 향유 또한 개별적이거나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사회구성원들 간에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맥락을 통해 이루어지고 전승되며 또한

향유되게 되는 문화를 실체적으로 인식하고 재생산구조 속으로 가져올 수 있는 개인은 한정적일 것이다. 구성원 모두가 문화의 실체에 동일한 수준으로 접근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차별적인 접근 양상을 보일 것이다. 작가는 높은 차원의 접근 양상을 보일 수 있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언어문화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다. 어떤 문화 현상이나 요소에 대한 통찰력을 지닌 존재이기에 그가 문학작품을 통해 형상화해내는 문화는 다른 어떤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수행해 내는 것보다 본질에 다가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작품의 창조 주체인 작가는 작품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집단의식의 최대치를 직접적 경험이나 세계관을 통해 그려내는 존재로 보고자 하는 골드만의 견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¹⁰⁾ 따라서 한 작가가 생산한 소설 텍스트는 문화의 역동적인 양상을 실체와 가깝게 그려내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소설을 통한 문화교육의 효율성 특히 문제해결로서의 문화교육의 효율성을 강조하게 된다. 앞서 설명한 네 가지 항목을 근거로 소설을 문화교육의 원천으로 삼고자 하는 셈이다.

2) 문화교육의 원천으로서의 고려사항

소설을 문화교육의 원천으로 삼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건들이 있다.

첫째, 시대적 요인의 선택이다. 문화교육의 내용을 논하게 될 때 대체로 전통문화를 앞에 내세우게 된다. 그런데 이 전통문화의 개념이 그리 수월하게 수용되지는 않는다. 어느 시대까지를 기준으로 전통문화를 운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요즘에 와서 전통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식의 기술을 보게 되는데 이는 개화기, 일제강점기, 60~70년대 등 모든 연대의 저작물에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전통문화’의 양태는 비정형에 가깝다. 한편 문화는 현재적인 작용력을 지니지 않는다면 그 본질적인 속

10) L. Goldmann(정과리·송기형 역), 숨은 신, 인동, 1980.

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지나간 시대에만 작용하는 힘을 가졌다면 특히 문화교육의 대상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지리적, 역사적 지식과 같은 범주처럼 시대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게 작용하는 범주도 있지만 문화가 지녀야 할 속성 중 하나인 지속력의 측면에서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필자는 문화교육을 위한 소설 텍스트에는 그리 큰 제한요소가 따르지 않겠지만 교육적 효율성을 위해서는 6·25전쟁 이후에 생산된 텍스트들이 보다 유용하리라 본다. 현재의 한국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요인들은 6·25전쟁과 산업화라고 보는데 동의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문제해결을 위한 문화교육이라면 현재적인 영향력을 가진 문화 양상을 다루어야 하고, 그렇다면 이 시기에 생산된 텍스트에 통찰력을 지닌 작가들에 의해 정련되어 제시된 문화양상을 다루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보고 있다.

둘째, 재화(retelling)의 필요성이다.¹¹⁾ 지금까지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작품의 역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문학은 한국어의 정수를 담아내고 있으므로 한국어교육의 제재로서 매우 적절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육내용으로 구현해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심도있는 차원에 이르지 못하거나 양식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¹²⁾ 양식상의 문제를 보면 설화가 주를 이루고 있고 수필 및 시를 대상으로 한 교육내용 및 방안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현대소설의 경우에는 매우 소략하다.¹³⁾ 무엇보다도 현대소설은 분량이 많고 외국인들이 읽기에 어려운

11) 재화의 개념에 대해 학계 차원의 보편적 정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현재는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의 출판물에서 독자를 고려한 서술 기법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 서사물에서 이루어지며 이야기의 기본 요소들은 유지한 채 문장의 재기술, 사건의 압축이나 확장, 어휘의 재선택, 묘사의 단순화 등이 주로 이루어진다. ‘청소년을 위한 토지’도 넓게 보면 재화에 해당한다.

12) 가장 최근의 연구사 검토 내용은 다음 참조.

김혜진,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 능력 향상을 위한 설화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9. 2.

13) 다음 논의 정도가 그에 속할 것이다. []안의 내용은 대상작가 또는 작품임.

윤영, 외국인을 위한 한국소설교육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99. [소나기]

어휘나 표현들이 많으며 내용을 이해하는 일이 쉽지 않고, 다루는 주제나 소재 또한 제한적이라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학 작품을 활용하면 효율적인 한국어교육이 가능할 듯싶는데 막상 작품을 선택하려면 선뜻 내세울만한 것이 없다는 고민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요인들은 국어교육 범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어려움이기도 하는 만큼 한국어교육에서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교육의 대상으로 삼을 작품의 선정기준으로 외국인에게 흥미 있고, 문학적 가치를 지니고,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며, 학습자의 언어 능력에 적절하고, 주어진 시간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이며, 영상 매체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든 연구자¹⁴⁾나 수업 시간에 완독할 수 있는 양, 플롯이 단순하고 주제의 선명도가 분명하며, 이야기 전개가 신속하여 흥미를 유지시켜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면에서 단편소설을 택한 또다른 연구자의 논리는 그 고민의 단초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문화교육을 상정하는 입장에서 필자는 재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작품 전체를 다 보여주어야 할 필연성은 없으며 학습자를 고려하여 어휘나 표현, 사건 전개의 양상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앞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작가의 통찰력에 기반한 감각적 명징성만 유지할 수 있다면 단순한 교열이 아닌 재화의 차원에까지 수정을 가할 수 있어야 하리라 본다. 물론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일은 필수적이겠지만 교육적 목적을 위한 수정에는 관대한 경향을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¹⁵⁾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학습자에 맞게 재화할 수 있다면 한국어교육에서의 활용 가능성은 더욱 커지리라 본다.¹⁶⁾

변신원, 문학 속에 드러난 민족문화의 자취와 외국인에 대한 문학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5 · 26, 2001. [김유정 소설과 해학]

박정, 외국인을 위한 한국 소설 교육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2. [메밀꽃 필 무렵]

김현진, 단편 소설을 활용한 한국어 고급반 수업 지도 방안, 이중언어학회 34호, 2007. [연미와 유미]

14) 윤영, 앞의 글.

15) 현재 국어교과서에 실리는 대부분의 소설은 부분 게시이며 내용상, 표현상의 문제로 일부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금기나 사투리, 저급한 표현 등이 수정 대상이다.

셋째, 문학교육과 분리 및 통합의 유연성이다. 문학을 통한 문화교육은 문학교육과 분리될 필요도 있으며 역으로 통합될 필요도 있다. 그런데 문학교육을 상정할 때 대부분의 경우 작품을 전체적으로 학습하여 이해하고 감상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전제를 설정한다. 그러나 이 전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문화교육을 위해서는 문학작품의 부분만을 제시하거나 어떤 부분이 전체의 맥락에서 분리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 본다.¹⁷⁾ 그래서 필자는 문화적 내용을 담고 있는 상황이나 장면을 중심으로 소설을 재화하여 제시하는 방안을 적극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문화교육과 재화를 염두에 두고 적절한 상황과 장면을 찾고 그것을 재구성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다음 장에서 제시할 사례를 선정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들이 소요되었다.

문학교육은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접근을 목표로 삼지만 문화교육은 부분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다고 보기에 분리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상호텍스트성의 원리 적용, 줄거리나 요약적 제시 등의 활용, 부분을 통한 전체에 이르는 확산적 사고의 유발 등을 통해 해당 작품의 자발적 수용에 이를 수 있도록 한다면 교육적 효과는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두 영역의 의무적·기계적 통합보다 유연한 결합이 필요하다고 본다.

16) 재화를 통하다보면 문학작품 고유의 ‘문학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지적은 ‘문학성’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학성’의 요체를 작품의 구조적인 미학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서 찾는 것은 ‘문학성’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 인물, 장면, 상황 등을 묘파하고 거기에서 삶의 문제를 읽어내고 자기화하도록 만드는 문학적 발상과 표현 또한 ‘문학성’의 한 양상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소설텍스트를 학습 제재화하는 일은 애초부터 작품 전체 차원의 ‘문학성’은 포기해야 하는 것과 통할 것이다. 이는 국어교과서에서 편 의상 소설의 부분을 신는 것과 다르지 않다.

17) 외국의 교과서(교재) 등을 보면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나 마크 트웨인의 작품의 일부를 주고 문법이나 어휘만을 가르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런 점들을 참조하여 발상해 본 것이다.

2. 문화교육을 위한 재화 텍스트의 사례와 방법적 접근 사례

앞 장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문화교육 요소를 지닌 상황 및 장면 중심의 텍스트들의 사례를 제시하고 그 재화의 원리와 방법적 접근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¹⁸⁾ 대상 학습자는 잠정적으로 중급 이상의 학습자로 학문 목적의 학습자나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한국어생활을 해야 하는 학습자들로 설정하였다.

1) 결혼식과 가부장 의식

이문구의 “관촌수필” 중 ‘공산토월’에 나오는 다음 장면은 작가 특유의 관찰과 이야기성을 통해 한국의 결혼의식과 가부장의식을 다루고 있다. 설명적 텍스트가 지니는 추상성 대신 구체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가. 재화 텍스트의 제시

외국인 대학원생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 재화 텍스트로 제시해 본다.¹⁹⁾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가 시간이 다 돼 간다면서 대빛자루를 들고 주위 청소를 한 다음, 개울 위에 가로질러 건너간 다리부터 신작로 쪽으로 뻗은 길을 쏘아 나가기 시작했다. 신부가 도착할 이름이 가까워진 눈치였다. 이윽고 신랑인 석공네와 친척이 된다던 남춘 동춘이 형제가 산에서 금방 파은 듯싶은 황토를 다리 위에 좌우로 두 무더기, 널빤지로 된 사립문턱 양쪽에 두 무더기씩 소복소복 쏟아 놓았다.

18) 여기서 선택한 텍스트와 그 내용은 관념문화, 생산문화, 행동문화라는 범주를 염두에 둔 것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19) 재화의 과정에서는 제일 먼저 어휘의 수준을 고려하였고 사투리와 지나치게 세세한 묘사의 배제 등이 이루어졌다. 이 장면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인물들 간의 에피소드도 중략으로 처리하였다. 도움을 준 서민리(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육전공 석사 졸업)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러는 사이에 ‘뛰뛰-’ 하고 자동차 닿은 소리가 신작로에서 들려오고,
“어머, 저 차로 왔나 봐.”

“각시 왔구나.”

“도라꾸 타고 왔대…….”

어른 아이 없이 저마다 생긴 얼굴대로 한입 가득 괴었던 소리들을 쏟아 내며 신작로 쪽으로 내닫기 시작했다. 나도 휩쓸려 따라가 보고 싶었지만 선 채로 놀러 참아야 했다. 지금 생각하면 가소롭기 그지없지만, 한창 『동몽선습』을 배우고 있던 터라 할아버지가 이르신 대로 글을 배우는 사람답게 체신을 지켜야 했던 것이다.

이윽고 쏠리어 내려간 조무래기들이 앞지르고 뒤따르며 되돌아오는 소리가 와글바글 들려 왔다. 나는 그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마중 나가듯 개울을 건너가 보게 되었다. 사모를 쓰고 가지색 단령(團領)을 입은 수줍음에 움츠러든 석공의 얼굴이 조무래기들한테 에워싸인 채 때밀려오듯 하고 있었다. 콧잔등엔 맑은 땀방울이 돌아 있었고 목화(木靴)를 신어 무척 뒤통스런 걸음을 걷고 있었다. 석공의 두 어깨 너머로 훨씬 치켜 올려진 채 뒤따라오던 청사초롱도 나는 보았다. 이어 청사초롱 뒤로 가마지붕이 보이자 나도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가마 곁에 달라붙으며 각시 구경을 하려 했지만, 가마 앞에 오던 폐백물 든 사람과 감주단지를 든 부인네 그리고 함진아비 영감이 소리를 질러가며 말리고, 가마를 멘 두 교군꾼의 걸음이 가마 발[簾]을 제껴 붙틈도 없을 만큼 겹쳐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가장 선명하게 기억되는 것은, 폐백드리기를 끝낸 각시가 홍상(紅裳)에 활옷을 입고 족두리를 얹고, 안방 아랫목에 무릎 꿇고 앉아서 고개를 못 들어하던 모습이며, 내가 얼마 동안인가를 각시 혼자 두었던 석공네 안방의 윗목에 턱살을 쳐들고 앉아서 각시의 얼굴을 뜯어본 일이었다. 어린 눈에도 각시는 여간 예쁘지 않은 것 같았다. 아무리 분으로 뒤발한다더라도 그토록 깨끗할 수 없으리라 여겨지던 해말끔한 살결이며 달걀처럼 가름한 얼굴에 오탁하게서 있던 콧날…… 누가 뜯어보더라도 섬세시라고 미루어 함부로 훔잡지 못할 것이 분명하였다. 나는 점심때가 겨웠건만 배고픈 줄도 모르고 각시만 지켜보고 있었다. 다른 동네 아이들은 물론 일가 푸네기 아이들도 기웃거리거나 드나들지 못하게 말리고 있었지만, 나더러 자리를 비키라든가 나가 주기를 눈치하던 이는 아무도 없었다.

(중략)

“서방님께서 아시면 되게 혼나…….”

옹점이 속닥거리고 있었다.

“…….”

“나리마님께서 걱정하신다니까… 그만 가 자자니께는.”

밤새껏 그리고 서 있다면 할아버지 걱정을 들음에 자명한 일이었다.

“저이들이 석공을 몽둥이로 팬다는데…… 새끼로 천장에다 달아맨데.”

나는 근심스러워 풀죽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연방 도리질을 하였다. 그녀는

“신랑 달아 먹는 거야. 그런 건 노상 장난으로 하는 거야.”

그녀는 히죽히죽 웃다 말고 나를 덥석 둘러업었다. 옹점이 등에 업혀 돌아오면서 나는 다시 하늘을 쳐다보았다. 얼마나 드높고 가없으며 꿈속에서의 하늘처럼 이상하게만 보인 하늘이었던가.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던 달도 나만을 쳐다보고 있었고,

내 그림자를 쫓아 대문 앞까지 따라오던 것이 아직도 눈에 선하게 남아 있다. 옹점은 나를 안방 윗목의 폭신한 새 요 위에 부리고 누비이불을 덮어 주며 실실 웃었고, 어서 잠이 들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나는 사모 찢던 석공의 모습과 몽둥이와 새끼타래를 잔뜩 움켜쥐고 벌러 대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코가 너무 세서 팔자는 어떻게 몰라도, 농, 경대, 반진고리…… 명이불 두 채하고요 명지 누비이불…….” 옹점은 어머니 앞에 앉아 석공네 각시가 해온 혼수들을 부러운 양 늘어놓으며 자리가 숭늉대접을 벌썩벌썩 들이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놋요강, 놋대야, 오석다리밧들…… 바느질 숨씨도 팬찮고 품도 넉넉하니, 새색씨 손이 크겠다고들 하는데, 제가 보기에 도 머느리는 제대로 얻었어. 코가 너무 오뎅해서 어떻게 몰라도요…….”

하고 침이 마르게 지껄이고 있었지만, 내 귀는 이미 담을 넘어 석공네 마당에 닿고 있었다. “당그랑그랑 당그랑그랑…….”

나는 허끝으로 장단을 흥내내고 있었다. 석공네 마당에서 팽과리와 징이 없는 풍장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던 거였다. 그뿐 아니었다. 노랫소리도 곁들여서 들려오고 있었다. 마음놓고 목청껏 불러 대는 소리였다.

“대동강 부이벽루에 산뽕을 가는, 리슈일과 심순애의 량인이로다, 악수론고하난 것도 오날뿐이요, 보보행진 산뽕힘두 오날뿐이라…….”

나는 온몸이 그닐거리고 쭈서 잠은커녕 진드근히 누워 있을 수도 없었다. 무슨 핑계를 대고 빠져나갔던가는 기억해 낼 수 없다.

내가 다시 석공네 마당으로 달려들었을 때, 발마당의 모닥불은 거의 사위

어 버리고 사람 하나 열썬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풍장 소리와 노랫소리는 사립 울안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여전히 누군가가 ‘소리’를 부르고 있었다. 안마당엔 어른들이 겹겹으로 둘러서서 모두가 엉덩이를 궁싯 궁싯 들썩대며, 그러나 하나같이 군소리를 참고 눈과 얼굴로만 흥겨워하고 있었다.

누구 음성이었을까, 생전 처음 들어 본 그 구성진 가락은.

“석탄 백탄이 타는데, 연기만 펄펄 나는데에…… 이 내 가슴 타는데, 연기가 하나도 안 나는데…… ”

나는 키가 모자라 사람 다리만 뻗뻗한 쪽마루에 비비대고 올라가 넘어다 보았다. 그리고 놀랐다. 놀라지 않을 수 없던 것이다. 한 손으로 주안상 가장 자리를 두들겨 가며 앉아서 노래하는 어른, 코와 눈이 그렇게 크고 음성 또한 굵직한 신사, 그이는 아버지였다.

나는 가슴이 벅차올라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황홀하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여 얼마를 두고 뚫어지게 바라보았으나 분명 아버지였다.

당신으로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에 도취된 모습이기도 했다. 우선 석공네 울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현실 같지 않았고, 노래를 하는 것도 사실 일 수가 없으려면, 모든 것은 눈에 보인 그대로였다. 아버지는 안팎 동네 어느 누구네 집도 울안은 들어가 본 적이 없는 터였다. 하물며 전에 일жат집 행랑살이를 했던 사람 네 집에 들어가 있다니.

신서방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아버지의 맞은편에 꿰어앉은 석공은 연방 싱글벙글 웃어 가며 솟음솟음하는 신명을 어찌지 못해 답답한 표정이었다. 아버지가 노래를 마치자 요란스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신서방이 두 손에 술잔을 받쳐 드니 석공은 주전자를 기울였다. 아버지가 술잔을 받아 들자 신서방은 일어서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아, 나는 그때 또 한번 크게 놀라고 말았다. 다시 한번 뜻하지 않은 일이 벌여졌음이니 그것은 아버지가 일어서서 어깨춤을 추기 시작한 거였다. 그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아버지는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할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무릎 꿇고 조아려 공손하기가 몸종과 다름없었지만, 처자 앞에서는 단란하고 즐거워 웃더라도 결코 치아를 내보인 일이 없게 근엄하되, 한내친 백사장에 강연장이 설치되면 뜨내기 장돌뱅이까지도 전을 걷어치울 정도로 수천 군민이 모여들게 마련이었으며, 산천이 들렀다 놓인다 싶게 불뿔뿔 웅변을 했는데, 그때마다 청중들로부터 천둥보다 더 우렁찬 환호와 박수갈채를 얻고 당신을 알던 모든 사람들한테 선생님이란 경칭을 받았던, 저만치 멀리로 건너다보이며 어렵기만한 사람이었다. 어디 그

럴 법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남의 집 울안 출입에 노랫가락과 어깨춤……
신기함과 경이로움을 주체하지 못해 나는 몹시 당황했지만 그러나 그런 거
복스러움도 슬몃슬몃 가셔지고 있었다.

명석 가장자리로 둘러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덩달아 함께 어울려 춤을 추
기 시작했던 것이며, 그 속에는 작대기 막대기와 새끼타래를 내던진 쌍례 아
배와 복산 아배, 덕산이와 조패랭이가 섞인 채 누구보다도 흥겨워 몸부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흥겨움에 감싸여 흐른 밤은 얼마나 되었을까.
모든 사람들의 배움을 뒤에 두고 나는 아버지 뒤를 따라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아버지 그림자를 밟지 않기 위해 나는 이만큼 뒤쳐져 걷고 있었는
데, 그림자가 너무 길다고 느껴져 불현듯 하늘을 우르르니, 달은 어느덧 자
리를 거의 다 내놓아 겨우 앞치마만한 하늘을 두른 채 왕소나무 가지 틈에 머
물고 있었으며, 뒷동산 솔수평이의 부엉이만이 잠 못 들어 투덜대고 있었다.

아버지는 사랑 앞에 이르도록 헛기침 한번 없이 여전 근엄하였고, 나는
버긋하게 지쳐 놓은 대문을 돌쩌귀 소리 안 나도록 조용히 여닫으며 들어가
이내 곤한 잠에 떨어져 버렸다. 이튿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요 위가 질펀
하니 한강이었고 아랫도리가 걸레처럼 척척했으나 부끄러워서 일어날 수도
없었다.

〈어휘〉²⁰⁾

- 어름 : 어떤 정해진 시간이나 장소에 가까운 때나 곳
- 채신 : ‘차신’을 낮게 부르는 말.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져야 할 몸가짐
이나 행동
- 자리끼 : 밤에 자다가 마시기 위하여 잠자리의 머리맡에 준비하여 두는
물
- 그닐거리다 : 별래가 기어가는 것처럼 살갗에 근지럽고 저릿한 느낌이
자꾸 들다. ‘좀이 쭈시다’도 쓸 수 있다.

……

〈문화어〉

- 신작로 : 새로 만든 길. 특별히 일본이 조선 침략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해 만든 말이라고 보기도 한다.
- 도라꾸 : 트럭의 일본식 표현, 외국어가 들어오던 초창기에는 대부분 일

20) 어휘와 문화어는 제재화한 지면의 날개나 처마를 통해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본식으로 표현되었다.

- 서방님, 나리마님 : 신분이 차이가 드러나는 호칭들. 서방님은 ‘나’의 아버지이고 ‘나리마님’은 할아버지를 가리킴. 웅점이는 나의 집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높여 부름.

.....

〈시각 자료〉

(결혼식 장면이나 폐백 드리는 장면, 신행 행렬, 그리고 신랑 신부의 옷차림 등²¹⁾ 등의 자료를 제시함)

위 텍스트는 결혼식과 관련된 풍습과 의식이 잘 드러나 있으며 ‘나’라는 주체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 문화가 작용태로 제시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한 가정 내에서의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의식, 일종의 가부장의식의 구체적인 발현 양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미덕을 지닌다. 필자는 이처럼 문화 요소는 구체적인 정황에서 제시될 때 그 교육적 의미가 최대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방법적 접근

이 텍스트는 상황과 장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상황이나 장면은 이야기의 흐름을 어느 정도만 탈 수 있다면 외국인 학습자들도 그리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통해 목표 문화의 수행 능력을 기르게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몇 가지 대표적인 예만 들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학습자의 ‘사고활동’을²²⁾ 위한 배려가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① [도입-상호텍스트성] 함잡이를 소재로 한 동영상 광고를 통해 전

21) 여기서는 지면상의 문제로 시각 자료들을 생략하지만 교재화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문화간 차이를 넘어서 읽힐 수 있는, 즉 문화적 공통의 문식성의 한 요소로 시각 자료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22) 비교·대조하기, 정의하기, 분류하고 유형화하기, 예시하기, 인과 살피기 등의 사고 패턴을 의미한다.

통적 결혼 풍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환기한다.

② [도입-비교문화적 접근] 학습자들의 모문화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식에 대한 대체적인 정보를 교환한다. 모문화에서의 구성요소들과 견주는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²³⁾ 특히 ‘신부’가 시댁의 구성원으로 옮겨간다는 발상에 대한 접근의 통로를 마련하도록 한다.

③ [전개-문화의 일차적 성격]²⁴⁾ 아직도 풍습이 남아 있는 ‘품앗이로 서의 마을 결혼식 참여’에 대한 접근을 도모한다. 마을 사람들의 참여, 특히 아버지의 참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④ [전개-문화의 세부적 요소들] 신랑 달아 먹기, 첫 대면에서 신부에 대해 품평하기(코가 오뎅하다→팔자가 세다 등) 등의 세부적인 요

23) 발표자에게 중국 유학생이 전해 준 텍스트이다.

중국 전통 혼례예의는 “삼서육예(三書六禮)”라고 한다. “삼서”는 결혼 과정 중에 사용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이다. 혼인이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기록 문서이다. 이것은 바로 “빙서(聘書)”, “예서(禮書)”, “영서(迎書)”이다. 빙서는 약혼할 때 사용하는 문서이고, 예서는 예물의 명칭과 수량을 기재하는 문서이고, 영서는 아내를 맞을 때 사용하는 문서이다.

“육예”는 청혼부터 결혼 끝날 때까지 거쳐야 할 여섯 가지 예법을 말한다. 이것은 바로 “납채(納采)”,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정(納征)”, “청기(請期)”, “영친(迎親)”이다. “납채”는 중매인을 통해 남자 쪽은 여자 쪽 집안에게 선물을 가지고 혼담을 꺼내는 것을 가리킨다. “문명”은 여자 쪽은 납채를 받은 후 여자의 사주팔자를 중매인에게 준다. “납길”은 중매인은 남자 쪽에게 주고 남자의 사주팔자와 충돌하는 지를 확인한다. 만약 충돌하는 것이 없다면 혼사는 이미 인정된다는 뜻이다. “납정”은 남자 쪽은 여자 쪽에게 빙서(聘書)와 예서(禮書)를 보내는 단계이다. 이때는 예금과 예물을 가져가야 한다. 여자 쪽도 답례해야 한다. “청기(請期)”는 남자 쪽은 날짜를 정해서 여자 쪽의 동의를 얻는 단계이다. “영친(迎親)”은 결혼 당일에 예복을 입고 여자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남자 집에서 예식을 하는 단계이다.

24) 전개 단계에서 제시할 활동 유형들은 한국어 교사의 창의적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활동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안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들에 대한 다양한 접근 활동을 한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문화적 차이에 따른 문제의 해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맥락에 속한다.

⑤ [전개-문화의 전승] 문화 수행의 주체로서의 ‘나’의 존재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다. 학습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세계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⑥ [전개-의식의 양상] 아버지를 대하는 나의 태도, 할아버지를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 등을 통해 가부장의식이라는 문화적 요소의 구체적인 발현 양상에 대한 발산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설정한다.

확장 예) 이름 짓기 방식, 관용 어구(품이 넉넉하다, 손이 크다), 다양하고 풍부한 의태어 사용 등에서 드러나는 의식 또는 언어 사용 양상들에 대한 실천적 인식 등²⁵⁾

⑦ [정리-문화적 글쓰기]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에 대한 수용 내용을 바탕으로 글쓰기로 마무리함. 특히 앞서 제시한 사고 패턴을 활용한 다양한 형식의 글쓰기를 시도함. 과제는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모국의 신부와 한국의 신부’(비교·대조) ‘결혼식과 관련된 풍습 나뉘보기’(분류) ‘결혼식날 신부가 우는 이유’(인과) 등의 과제가 가능할 것이다.

25) 문학작품을 통한 문화교육의 내용 구성이 보다 역동적인 맥락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한 연구에서는 ‘메밀꽃 필 무렵’을 통한 문화교육 내용으로 ‘장터, 장돌뱅이, 물레방앗간, 백중, 달밤, 자연친화, 고향, 길, 금기’ 등을 설정한 바 있다. 대체로 정적인 측면에 놓인 요소들에 가까운 것들이다.
박정, 앞의 글, 81쪽.

2) 한국의 세시 풍속

최명희의 “혼불”에서 발췌한 다음 부분에는 세시풍속의 하나인 연날리기와 정월대보름의 달집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묘사가 많아 외국인 학습자에게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세시 풍속에 주체의 내면과 의식이 담겨 있어 실체적인 양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연날리거나 달집태우기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풍속이지만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접근은 그리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기에 의미 있는 텍스트가가 되리라 본다.

가. 재화 텍스트의 제시

역시 외국인 대학원생의 도움을 받아 재화한 것이다.

지금이야 세월이 어수선하여 그전 같지 않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마다 정초가 되면 온 동네 아이·어른이 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마을 언덕으로 나와, 귀가 떨어지게 찬바람 속에 가슴을 좌악 펴고 서서, 연자새(얼레)를 감았다 풀었다 하며 푸른 하늘에 꽃 같은 새를 날리듯 연들을 날리는 그 풍경은, 바라보기에도 참으로 화려하고 장쾌한 것이었다.

연이란 그저 바람 잘 타면 뜨기 마련인 종이 조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었다. 같은 연을 날려도, 자세를 감고 푸는 솜씨며 실을 당기고 늦추는 재주에 따라, 창공에 뜬 한 마리 연은 그야말로 아무도 당할 자 없는 술개가 되기도 하고, 그만 힘없이 떨어져 버리는 나뭇잎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이전에 무엇보다도 연은 우선 모양이 잘생기고 풍채가 당당해야 하며, 오려 붙인 꼭지나 그려 넣은 그림이 예쁘고 좋아야 했다.

아녀자의 바느질 솜씨나 마찬가지로, 남자가 자신의 연 만드는 솜씨를 한껏 뽐내어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만일 손이 둔하고 무디어, 틀이나 겨우 엮어서 후줄근하게 만든 연이라거나, 하찮고 볼품없는 그림이 얼룩덜룩 그려진 연을 들고 나와, 여럿 가운데 서서 날리게 되면 본인도 머쓱하여 부끄러워하였고, 남들한테도 은근히 흠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장에 나가, 한 개에 몇 전씩 하는 연을 사다가 날리는 것은 더욱 체면이 깎이는 일이었다.

연은 자기가 만들어서 놀아야 멋이었다.

그래서 으레 정초가 되면 집집마다 어린 아들이나 손자를 앉혀 놓고, 한 지를 장방형으로 반듯하게 자르며 가느다란 대오리를 곱게 깎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의 자상한 손길이, 신명나고 흥겹기 마련이었다. 그러면 방안에는 벌써부터 들판과 언덕 위의 바람이 설레며 부풀어 차오르는 듯하였다.

(중략)

연에 쓰는 물감은 적·청·황·흑·백의 오색이었다. 우주의 근원인 하늘에 띄워 올리는 빛깔이므로, 동·서·남·북과 중앙을 나타내며 음양오행의 원리를 담은 오방색만을 썼던 것이다. 그래서 그 색깔 따라 연에는 각기 다른 이름이 붙었다.

흰 몸에 둥그런 꼭지가 선연하게 붉으면 홍꼭지, 새까만 먹빛이면 먹꼭지, 푸른 반달을 접어 붙였으면 청반달연, 또 만일 몸판을 삼등분하여 색동으로 물을 들였으면 삼등치마연, 그리고 아름다운 오색 무지개를 넣었으면 무지개 꼭지연이라고 불렀다.

허나 만일 연에다 아무 빛깔도 넣고 싶지 않으면 이마에 꼭지만 하나 붙이고 수(壽), 복(福)나 용(龍) 자를 먹으로 써서 날리기도 하였다.

이 형형색색의 연들은 언덕 위에서 바람을 타고 하염없이 떠오르며 흐르듯 날기도 하고, 이마빼기를 느닷없이 후려치는 바람에 호되게 맞아 공중에서 휘청 흔들리기도 하며, 자기를 배어 내려고 사기먹인 실의 날카로운 이빨을 허영게 드러내며 달려드는 옆앓놈 서슬에 소스라쳐 허릿달이 휘어지게 달아나기도 하다가, 그 곤두박질치던 연이 열레의 튀김을 받아서 몸을 다시 곤추세워, 이번에는 거꾸로, 쫓기던 몸을 반공에 솟구치며, 쫓아오던 놈을 공격하기도 했다.

그런 광경들은 장관이었다.

그런데 유심히 보면, 유아를 막 벗은 어린아이가 서투르게 날리는 가오리 연 말고는, 하나같이 가슴 한복판이 둥그렇게 뚫려 있었다. 가슴을 도려내 버린 그 자리에는 메마른 연달만이 가슴에 걸린 가시처럼 드러나 있고, 그 구멍으로는 하늘이 그대로 푸르게 비치는 것이었다. 애[肝腸]도 창자도 없이 비어 버린 연의 가슴을 푸른 하늘이 대신 채워 주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저 빈 집을 아무 뜻없이 통과하는 바람처럼 하늘은 비치는 것일까.

강실이는 사립문간에 선 채로 하염없이 연들의 뚫린 가슴을 올려다보았다. 그 연들은 가슴에 하늘이 시리게 박힌 것처럼도 보였다.

(중략)

오늘은 보름밤.

지치게 날리고 놀던 연이나 금방 만든 새 연이나 가릴 것 없이, 이제 더는 가지고 있지 못한다.

생솔가지와 생대나무로 푸르게 엮어 지은 달집이 몽글몽글 구름덩이 같은 흰 연기를 토하며 타오르는 붉은 불길에 던져 넣은 연들은, 화르르 불너울을 일으키며 눈 깜짝할 사이에 스러져갔다.

“모든 액(厄)은 다 타 버리라.”

고 사람들은 연을 던져 넣으며 빌었다.

제 연이 허망하게 불티로 날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얼굴에 불 그림자가 주황으로 일렁였다. 그러나 아까워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 대보름날 밤이면, 집집마다 멀리 날리어, 앞으로 다가올 액을 미리 막으려는 액막이 연을 띄우는 것이었다. 마치 소복을 한 듯 아무 색도 입히거나 칠하지 않은 백지의 바탕이 소슬한 흰 연에다, 섬뚱 하리만큼 짙고 검은 먹빛으로

“厄(액).”

“送厄(송액).”

“送厄迎福(송액영복).”

을 써서, 갓 떠오르는 새 달의 복판으로 날려 보내는 이 액막이 연은, 얼음같이 푸르게 비추는 정월의 달빛 속에 요요한 소지(燒紙)처럼 하얗게 아득히 올라갔다.

열레에 감긴 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있는 대로 모두 풀어 그 연을 허공에 놓아 주었다.

멀리, 저 멀리, 더 먼 곳으로 날아가라고“강실이 저것이 올해 신수가 영안 좋다고, 당골네가 무슨 소리를 허드마는, 몸이라도 어디 성찰을까 걱정이 되니, 거기서 허라는 곳이야 말대로는 다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제웅이나 하나 띄워 줍시다.”

오류골댁은 신수를 짚어 주던 당골네 백단이의 말이 마음에 걸려, 기웅에게 며칠 전부터 말을 해 두었다. 제웅은 짚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액막이로 쓰는 허수아비다. 제웅을 달아 연을 날려 보내자고 하는 것이다.

〈알아두기〉²⁶⁾

강실 : 소설의 중심인물 중의 하나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 사랑을

이를 수 없기에 한을 안고 살아감. 오류골택은 어머니임.

〈어휘〉

연 달 : 연의 머리, 허리, 가운데와 네 귀를 열려서 꼬챙이처럼 깎아 붙이는 대나무

꼭 지 : 종이 연의 가운데에 붙이는 표

대오리 : 대나무로 만든 오리. 오리는 실, 나무 등의 가늘고 긴 조각을 말함

〈문화적 상징〉

정월 대보름날에는 부럼, 오곡밥 먹기,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의 풍습이 있는데, 불은 정화(淨化) 등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시각 자료〉

(문화적 보편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각국의 연의 모습을 몇 가지 제시함. 또한 대보름날의 달집 태우기 같은 사진(현재성을 지닌 사진) 등도 제시함)

〈작가 소개〉

이 소설의 작가인 최명희는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살려 글을 쓰려는 노력을 해왔다. 잊혀져가는 한국말을 되살려내고 그것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0권이나 되는 장편소설인 <혼불>을 썼다. 한국어의 고유한 모습들을 찾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라북도 남원에 일찍 세상을 떠난 그녀를 기념하는 문학관이 있다.

나. 방법적 접근

위 텍스트에 나타나는 문화적 요소들에 대한 접근 역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몇 가지만 예시해 보고자 한다.

① [이해] 연의 가운데에 뚫린 구멍을 보고 “가슴을 도려내 버린 그

- 26) 소설 텍스트를 제시할 경우 불가피하지만 필연적으로 선택과 압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제시된 부분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역시 날개와 처마, 또는 별면으로 처리한다.

자리”라고 생각하는 ‘강실’의 생각을 통해 ‘한’의 정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문화의 일상화, 생활화의 양상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인의 정서적 태도의 핵심으로 제시되는 ‘한’의 정서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주체(여기서는 강실)의 시선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임을 이해한다.

- ② [비교문화적] ‘기복’은 보편적인 문화 양상으로 비교문화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도 연을 통해 ‘액막이’를 추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밀한 접근도 가능하다. 모문화의 기복 신앙적 요소와의 비교를 통한 이해가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 ③ [분석] 달집태우기라는 풍습을 통해서 문화적 상징어로서의 ‘불’에 대한 이해도 도모할 수 있다. 보편적인 상징어기도 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심층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 ④ [태도] 위 텍스트의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속담들을 통해 여기에 나타난 풍습들이 상당한 현실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며, 그것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속담 예) ‘개 보름 쇠듯 (한다)’ ‘정월 대보름날 귀머리장군 연 떠나가듯’ ‘정월 열나흔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센다’ ‘정월 보름 달을 먼저 보는 사람은 복을 많이 받는다’ ‘방패연의 갈개밭[갈기] 같다’
- ⑤ [수행] 연 만들기 같은 문화 수업을 구안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 자신이 스스로 기복의 양상을 추체험할 수 있도록 구안하는 일이다. ‘기복’의 맥락도 실천하여 문화적 수행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도록 배려한다. 단순히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문화 수행의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양한 학습자 군이 겪게 될 문제 해결 능력과도 관련

된다.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기복 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복 행위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의 해결을 의미한다.

3) 한국인의 행동 의식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의 하나가 ‘빨리빨리’ ‘서열 및 권위’ 의식 등이다.²⁷⁾ 이런 의식을 실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것으로는 문학작품을 우선적으로 상정할 수 있다. 다음 작품은 이호철의 ‘어느 이발소’에서라는 작품으로 ‘창작과 비평’ 창간호의 첫머리에 실려 있다. ‘창작과 비평’이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그 창간호 첫머리에 실린 이 작품은 여러모로 의미를 던져 준다. 한국 사회를 관류하는 의식의 한 양상을 감각적이고도 예리하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문화교육의 원천으로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가. 재화 텍스트의 제시

이발소 문이 열리고 또 손님 하나가 들어섰다.

“어서 읍쇼요.”

가위질을 하던 박씨가 들어서는 손님을 거울 속으로 힐끗 보며 상투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어서 오십쇼.”

문가에 서 있던 이발소 소년도 ‘어’자에 악센트를 주며 경쾌하게 소리를 질렀다.

“빨리 됩니까, 빨리?”

들어선 녀석은 이발소 안을 휘둘러보며 다짜고짜 급하게 물었다.

“네에, 얼른 됩니다. 얼른입쇼. 앓으십쇼.”

올백을 한 머리에 포마드를 몽테기로 바르고 번들번들하게 영양이 좋게 생긴 박씨가 역시 돌아보지 않고 가락을 띠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이렇게

27) 이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김수진, 문화간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한국문화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즐겁기만 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소년이 손님의 등뒤로 가 서서 상의를 벗겨 드리려고 했다.

“똑똑히 얘기해요, 똑똑히. 빨리 되는지. 빨리 될 수 있는지.”

비로소 박씨가 가위를 든 채 돌아보았다.

맞은편 긴 소파에 양말 신은 두 발을 올려놓고 비스듬히 모로 누워 한 손으로는 발바닥을 주무르며 못다 읽은 조간신문을 뒤지고 있다가 어느새 신문지를 허공에 경중 든 채 깜박 잠이 들었던 주인도 눈을 떴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신을 차리려고 하며 두 발을 여전히 소파 위에 놓은 채 꾸물 꾸물 일어나 앉았다.

“사람이나 좀 똑똑히 쳐다보면서 얘기해요. 빨리 될 수 있소?”

그 녀석은 박씨 앞에 샛대질을 하듯이 또 거친 소리를 질렀다. 국방색 잠바에 통이 좁은 검장색 바지 차림의 서른 남짓 되어 보이는 사내였다. 짧게 깎은 앞머리가 가지런히 일어서 있고 손에는 울이 굵은 검장 모자를 들었다. 칼칼하게 야윈 몸매지만 서슬이 선 눈매를 지녔고, 하관이 빠르고 얼굴색도 까무잡잡하다. 앞니에 금니 두 개를 해박았다. 구두가 인상적으로 써늘하게 생겼다. 구두방에 진열되어 있는 구두는 구두에 불과하지만 일단 사람의 발에 신기면 구두도 그 주인의 위인과 더불어 주인을 닮아가게 마련이다. 끝이 뾰족하고 반들반들 윤기를 내고 있다.

헤프고, 사근사근하고, 무르고, 계다가 병역 기피자인 박씨는 대번에 꺼칠한 얼굴이 되었다. 처음부터 나오는 것이 예사 손님 같지는 않다.

“글쎄, 앓으십시오. 빨리 해드릴 테니.”

“얼마나 빨리 되어? 몇 분에 될 수 있소?”

“허어, 이 양반이 참 급하기도.”

“뭐? 이 양반? 언더 대구 반말이야? 말조심해.”

앓았던 손님 두엇이 거울 속에서 힐끗 쳐다보았다. 그리고 거울 속에서 눈길에 부딪칠 듯하자 급하게 외면을 하였다. 세발대의 두 소년도 우르르 머리들을 이편으로 내밀고 구경을 하고 손이 빈 민씨와 김씨도 구석 쪽 빈 이발의자에 앉아 묵은 신문을 보다가 말고 몸체만을 엉겨주춤 돌렸다.

청년은 다시 이발소 안을 둘러보다가 그 눈길에 주인에게 가 멎었다. 주인도 여전히 양말 신은 두 발을 두 손으로 주무르면서 마주 올려다보았다.

“당신은 뭐요?”

“주인이요.”

“주인이면 주인이지, 그 앓아 있는 꼴이 뭐요? 도대체 이 사람들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때가 어느 땐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술 냄새가 약간 났으나 옹기는 한 소리인 것 같아서 주인도 후닥닥 일어나 섰다.

보기 흉하게 몸체만 돌리고 앉았던 민씨와 김씨도 청년의 눈길이 그쪽으로 돌아오기 전에 화닥닥 일어서고, 세발대의 두 소년도 제자리로돌 돌아갔다.

기운 오후의 느슨느슨한 분위기에 잠겨 있던 이발소 안이 갑자기 썩늘해졌다. 평퍼짐하게 모로 누워 있던 이발소 기구들도 뻘뻘뻘 일어서진 듯하고 금빛, 은빛 금속 기구들이 사방에서 번쩍번쩍하였다. 맹렬하게 하품을 하던 사람들이 모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중략)

다시 거울을 향해 돌아앉은 청년의 머리에 민씨가 조심조심 가위를 들이댔다.

“도대체에 사람들이 나빠요, 나빠. 정신들이 말짱 안 되어먹었거든. 모두 비겁하기가…….”

청년은 또 이렇게 악악거리며 주절대다가 다시 거울 속에서 민씨를 건너다보며 물었다.

“당신, 군대 갔었소?”

“네.”

민씨가 기겁을 하듯이 화닥닥 놀라며 한참 만에야 묻는 뜻을 알고 대답했다.

“언제 제대했소?”

“팔십칠년 오월에.”

“팔십칠년?”

“아니, 저어 그러니까, 오시입.”

하고 민씨는 한 손가락으로 재빨리 셈을 해보고는,

“오시입사년 유월입니다.”

그 표정이 우스웠던지 청년은 거울 속의 자기 얼굴을 보며 비로소 처음으로 비시시 웃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제대까지 한 사람이 있으면서 왜 이 모양이야, 이 이발관은. 좀 빠릿빠릿하지 못하고. 도대체에 당장 빨갱이들이 나오면 어쩌려구.”

백번 옹은 소리일 것이어서 민씨도 겸손하게 수긍하는 표정을 하였다.

<다음 이야기>

비슷한 차림과 태도를 보이는 청년의 친구가 다시 들어오면서 이발소 안

은 더욱 긴장감에 쌓이게 된다. 여러 가지로 약점을 지닌 사람들은 청년들에게 계속 당하기만 한다. 나중에 몰래 이발소를 빠져 나간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고 청년들은 경찰서로 끌려갔는데, 평범함 시민으로 밝혀졌고 특별한 죄가 없어 그냥 풀려나게 된다.

〈어휘·표현〉

서울이 선 : 서울은 강하고 날카로운 기세를 뜻하며 ‘선’은 무딘 것이 날카롭게 된다는 뜻이다.

하관이 빠른 : 하관은 광대뼈를 중심으로 얼굴의 아래쪽 턱 부분을 가리키는데, 이 부분이 도톰하지 않고 매끈하게 이어지는 모양을 하관이 빠르다고 표현한다.

〈시각 자료〉

이 작품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배경적 요소로 군사쿠테타 직후에 쿠데타 중심인물들이 군복을 입고 검은 안경을 쓰고 모여있는 사진들을 제시하여 이 소설의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작가 소개〉

이 소설의 작가인 이호철은 6·25전쟁을 직접 겪은 소설가로 전쟁을 다룬 소설들을 많이 썼다. 특히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부정적으로 변해가는지를 많이 다루었다. 이후에는 독재정권의 부당성이나 부조리를 고발하는 작품들을 쓰게 된다. 이 소설처럼 상황을 잘 만들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나. 방법적 접근

이 텍스트에는 한국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한 축을 담당하는 한국 전쟁의 영향력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른바 군사문화로 부를 수도 있는데 개발독재시대의 사회의식이 해프닝에 가까운 상황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몇 가지 활동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① [상호텍스트성] 본문 중의 사진에 추가로 군인정신과 근로정신을 강조한 당시 만평이나 기사 제목들을 제시하여 배경 지식으로 삼

도록 한다.

- ② [유추/비교문화적] 차림새를 특징짓는 요소 중 특정 색깔이 가지는 의미를 탐색해 보는 활동을 한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호원과 유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옷차림 색,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양복 색 등을 통해 그 의미를 추론해 보도록 한다. 모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는 일도 필요하다.
- ③ [분석] 청년들이 말이 힘을 가지는 원인을 탐색하는 활동이다. 그들의 말은 일종의 ‘권력언어’인 셈인데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탐색하는 일이 필요하다. 일단 그들의 모습을 스케치하면서 차림새를 특징짓는 요소들(색깔, 입성 등)을 찾도록 한다.
- ④ [수행] 청년의 말투를 재현해 보도록 함으로써 그의 언어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힘을 파악해보도록 활동을 유도한다. 특히 ‘지금 때가 어느 땐데’라는 말 속에 담긴 억압적 분위기에 대해서도 탐색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빨리빨리’라는 의식이 왜 형성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회적 권위는 어떤 근거를 통해 형성되게 되었는지 ‘군대’, ‘빨갱이’ 등의 용어를 통해 접근해 갈 수 있도록 한다.
- ⑤ [태도] 공공기관이나 권력자에 대해 형성되어 있는 의식 때문에 곤란을 겪은 적이 있는 외국인 학습자의 경험담을 통해 그러한 상황에 대응해 갈 수 있는 태도의 형성을 도모한다.

IV. 맺음말

문화교육은 매우 실체적인 양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효율적

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주체가 개입된, 작용태로서 제시되는 문화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상황과 장면을 중심으로 재화된 현대소설을 제재로 하는 문화교육의 설계를 제안해 보았다. 한 사회의 문화에 가장 섬세하고 통찰력있게 접근할 수 있는 존재라 볼 수 있는 작가의 의해 포착된 문화가 설명문 방식으로 제시되는 문화에 비해 역동적이고 실천적으로 다가갈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여러 목적을 위해 한국어활동을 하는 데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문화적 요소들에 대한 문제 해결적 접근을 문화교육의 목표로 삼는다면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 되리라고 판단한다.*

* 본 논문은 2010. 10. 31. 투고되었으며, 2010. 11. 5. 심사가 시작되어 2010. 11. 30.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경희대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부(2001), 『한국어』, 경희대출판국.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5), 『한국어』, 문진미디어.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7), 『한국어』, 연세대학교 출판부.
- 김대행(2008), “언어교육과 문화인식,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의 내용과 방법”, 국
제한국언어문화학회 5차 학술대회 자료집.
- 김대행(2003), “한국어교육과 언어 문화”, 『국어교육연구』 12집.
- 김동환(2008), “공유 텍스트를 통한 한국어교육의 한 방법”, 『국어교육학연구』 31집.
- 김동환(2009), “서사 모티프의 문화 간 이야기화 양상과 한국어교육”, 『국어교육학연
구』 35집.
- 김양숙(2010), “현대소설의 한국어교육 제재화 방안과 교수학습 방법연구”, 한성대학
교 석사논문.
- 김수진(2010), “문화간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한국문화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
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정숙(2003),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 『외국어교육』 10-1.
- 김중철(2004),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제재 활용의 전통, 『국어교육연구』 14집.
- 김중섭(2005), “외국인을 한국 문화교육 연구의 현황 및 과제”, 『이중언어학』 27.
- 김지혜(2010), “우화 제재를 활용한 한국어 읽기 교육 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논문.
- 김현진(2007), “단편 소설을 활용한 한국어 교급반 수업 지도 방안”, 『이중언어학회』
34호.
- 김혜진(2009),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 능력 향상을 위한 설화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민현식(1996), “국제 한국어교육을 위한 국어 문화론의 내용 구성 연구”, 『한국말교육』 7.
- 박영순(2003), “한국어교육으로서의 문화교육에 대하여”, 『이중언어학회』 23호.
- 박영순(2006),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 학림출판사.
- 박 청(2002), “외국인을 위한 한국 소설 교육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변신원(2001), 문학 속에 드러난 민족문화의 자취와 외국인에 대한 문학교육 외국어
로서의 한국어교육 25·26.
- 서민려(2009), “일상적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어 말하기 교육 방법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논문.
- 우한용(2003),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의 효용”,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연구』 제3집.

- 윤여탁(2003),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 방법”, 『국어교육』 111.
- 윤 영(1999), “외국인을 위한 한국소설교육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소나기].
- 임경순(2009), 『한국어문화교육을 위한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조향록(1998), “한국어 고급과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9권 2호.
- 조향록(2002), “한국어 문화 교육론의 주요 쟁점과 과제”,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일레인 볼드윈(조애리 외 역)(2009), 『문화코드 어떻게 볼 것인가』, 한울.
- L. Goldman(1980)(정과리 · 송기형 역), 『숨은 신』, 인동.
- Tomalin & Stempleski(1994), *Cultural Awareness*, Oxford University Press.
- Tomlinson, B(ed)(2003), *Developing Materials for Language Teaching*, Continuum.

<초록>

한국어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읽기텍스트 선정 전략 연구

—문화교육을 위한 현대소설 제재를 중심으로—

김동환

문화교육으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위해서는 텍스트 선정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목표보다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문화교육은 매우 실체적인 양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주체가 개입된, 작용태로서 제시되는 문화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상황과 장면을 중심으로 재화된 현대소설을 제재로 하는 문화교육의 설계를 제안해 보았다.

한 사회의 문화에 가장 섬세하고 통찰력있게 접근할 수 있는 존재라 볼 수 있는 작가의 의해 포착된 문화가 설명문 방식으로 제시되는 문화에 비해 역동적이고 실천적으로 다가갈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여러 목적을 위해 한국어활동을 하는데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문화적 요소들에 대한 문제 해결적 접근을 문화교육의 목표로 삼는다면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 되리라고 판단한다.

소설이 문제적 장르라는 점에서 문화적 요소들 때문에 장애를 겪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문제 해결의 전략을 제시해 줄 것이다. 소설적 상황과 장면들은 대체로 문제 해결 과정과 연관되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접하게 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화적 문제 상황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문화교육을 위한 텍스트로서 매우 유용하다고 본다.

【핵심어】 한국어교육의 효율성, 문화교육, 제재 선정 전략, 현대소설의 제재화, 재화, 문제적 장르, 상황과 장면, 장애 요인, 작가적 감각과 통찰력

<Abstract>

A Study on the Strategy in Selecting of Reading Text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Kim, Dong-hoan

This article aims to map out the korean culture education. It is desirable for cultural education to be executed by very substantive aspects. In that respect, the situations and scenes reflecting korean culture context in korean novels are very effective devices.

This idea derives from the recognition that writer is the most sensitive and discerning person about the culture. The cultural contents being caught on the writer were more dynamic and practical than expository text for culture.

Especially, because the novel is problematic genre, it propose a strategy for the problem solution that a foreign learner meet in the korean language activity.

【Key words】 strategy in selecting of reading text, modern korean novel, retelling, writer's sense and insight, obstacles in communication, problematic genre, situation and scenes reflecting cultural context